

Suejin Chung

정수진 (b.1969)

정수진에게 그림이란 “의식과 무의식이 맺는 관계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의식이라는 보이는 것과 무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합쳐진.... 무의식이란 우리의 외부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만 아직 우리의 의식이 인지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무의식이라는 것도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 것이 아닐까요?” 정수진에게 그림이란 이 두 가지 세상, 즉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접점인 ‘평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세상이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 ‘관계’를 고민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그리하여 자신이 존재하는 세상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서로 상반된, 하지만 결국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야릇한 이분법 앞에서 정수진은 ‘관찰’이라는 예술적 행위로 정면 돌파해왔다. 자신이 관찰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 정수진의 그림에 숨겨 있는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가 그의 그림에 똥똥 떠다니는 수많은 도상, 즉 작가가 만들어내는 갖가지 ‘상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수진의 그림은 작가가 구현해낸 그림 속 세상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에 생명을 불어 넣는 상징들을 빼놓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양파, 토마토, 촛불 같은 눈에 익은 사물이 있는가 하면, 신화 속 상징이나 상형문자를 떠오르게 하는 정체불명의 사물이 있다. 심지어 편의점과 같은 공간도 하나의 도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정수진의 그림 속 도상은 미술의 비밀언어를 해독하는 문법으로서의 본래 의미를 철저히 거부한다. “도상들과 그 배열은 기존의 상징적 의미나 관념, 이야기에 대한 연상을 피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형상이 맺는 언어적 의미와의 모호한 연관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시각적인 것으로만 보기 위함이에요.”

도상이 무엇이던가? 미술사의 알레고리(allegory,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형식)와 의인화, 그리고 상징을 시각적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던가. 파노프스키가 도상학(Iconologia)을 통해 미술 작품의 형태에서 주제나 의미로 미술사의 관심을 돌렸던 것처럼 도상이라는 이미지를 설명하고 분류하는 연구 방식은 그림 속 비밀을 읽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정수진은 그림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도상의 본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듯하다. “도상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상징과 언어에 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저는 그림에 도상을 새길 때 그것이 갖는 원초적인 의미를 퇴화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언어의 껍질을 벗긴 후에 남는 시각적인 속성을 그림에 반영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배치’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도대체 저 도상이 왜 저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미지로 남기게 되면 감상자들은 망설이게 되죠. 작가가 그린 시각적 결과물은 완결된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정작 그것이 갖는 언어적 혹은 상징적 의미를 해석할 방법이 막막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린 이미지들은 하나의 ‘껍데기’인지도 몰라요. 그림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림은 언어적 의미를 제거한 선과 색과 공간을 이루는 다층적인 시각요소라는 겁니다.”

미술가 정수진 -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미술가, 윤동희) 중 일부 발췌



Brain Ocean 5, Oil on Canvas, 175x175cm, 2020.



Brain Ocean, Oil on Canvas, 180x220cm, 2020.

정수진 Suejin Chung (1969-)

1995 시카고 미술대학 대학원 졸업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4 페이지 갤러리, 서울
2023 The Last Scenery of Mind, 이유진갤러리, 서울
2021 전지적 작가 시점이 존재하는 형상계, 이유진갤러리, 서울
2018 다차원 생물 - 의미의 구조, 이유진갤러리, 서울
2014 The Advent of Multidimensional Creatures,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13 다차원 존재의 출현,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11 입체·나선형 변증법, 몽인아트센터, 서울
2010 현시(現視), 두산 갤러리, 서울
2009 아라리오 뉴욕 갤러리, 뉴욕
2006 아라리오 서울 갤러리, 서울
2000 뇌해, 사루비아 다방, 서울
1999 시공 갤러리, 대구

주요 그룹전

2023 히스테리아: 동시대 리얼리즘 회화, 일민미술관, 서울
2019 두산갤러리 뉴욕 10주년 특별전: Decade Studio,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2016 이미지 연산: 64 개 형상소, 이유진갤러리, 서울
2014 K-P.O.P. - Korean Contemporary Art, 국립타이페이현대미술관, 타이페이
2013 숨겨진 차원,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한국미술, 대항해 시대를 열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정수진, 박미나 2 인전, 일주&선화 갤러리, 서울
2012 프로젝트 72-1, (구)홍익부속초등학교, 서울
회화의 예술, 학교재 갤러리, 서울
Re-opening Doosan Gallery Seoul, 두산 갤러리, 서울
다섯 개의 프롤로그,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11 House/Hold, 유진 갤러리, 서울
해인 아트 프로젝트: 통 통 Tong, 해인사, 합천
Thinking of SARUBIA, 가나아트센터, 서울
Reopen at Hannam,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Chopping Play: Korean Contemporary Art Now, ION 갤러리, 싱가포르
2010 K-Art ARCHIVE ROOM,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플라스틱 가든, 상하이 민생현대미술관, 상하이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천안
2009 D-Air: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두산 갤러리 뉴욕
2008 메타모포즈, 한국의 트라젝토리, 에스파스 루이뷔통, 파리
2007 Disturbed: New Art from Korea, 페레스 프로젝트, 베를린
2006 Give Me Shelter, 유니온 갤러리, 런던
2004 갤러리 스케이프 개관전,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정수진, 스티븐 곤타스키, 박미나, 국제갤러리, 서울
2003 영광찬란: 한국 현대미술, 비즈아트센터 & 이스트링크 갤러리, 상하이
그리는 회화: 혼성회화의 제시, 영은 미술관, 광주
아트스펙트럼 2003, 호암아트홀, 서울
2002 한중 회화-2002 새로운 표정, 예술의 전당, 서울
네오 페인팅- 한·중 젊은회화: 새로운 시대의 회화, 영은 미술관, 광주

The Show, 인사아트센터, 서울
Coming to Our House, 달링 아트 파운데이션, 서울
2001 2인전, 백상기념관, 서울
티라나 비엔날레 1: Escape, 티라나
2000 젊은 모색 2000 -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9 한국 신세대 흐름전: 믹서앤쥬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주차장 프로젝트 1: 만화, 아트선재센터, 서울
1998 도시와 영상-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2009 두산 레지던시, 뉴욕
2003 쌈지 레지던시, 서울

주요소장처

문예진흥원, 서울
연강재단 두산아트센터, 서울
선화예술문화재단,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